

예배 (레위기 1:1-17)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배이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다.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인간은 모두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저주는 영적 문제이다. 저주가 영적 문제이면 예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예배 안에는 결국 믿음과 기도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 있다. 우리는 때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상황에 걸릴 때도 있다. 그런데 한번씩 간중 들어보면 정말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다. 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다. 기도와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 때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는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 써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현실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응답을 받게 되고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도 이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다. 놀라운 일이다. 유대인은 아직도 율법적으로 밖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지키는데 율법적으로밖에 못 지키다. 그런데 유대인이 세계의 지성과 문화를 정복했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 강대국인데, 유대인이 그 배경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한다. 유대인이 누구냐면 지키라고 성경에 써 놓은 것을 구약식으로밖에 못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놀랍지 않나? 오늘 이야기는 번제 이야기인데 제사의 대표적인 것이다.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도 알고 복음도 알고 있다. 우리가 만일 꾸준히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약식으로 하고 있다. 틀린 것이다. 일단은.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반드시 결과 오지 않겠는가? 일단 유대인들이 2천년정도 걸렸다는 것을 참고하고 지속해야 한다. 오늘은 레위기 1장을 보고 있다. 지지난 주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장을 봤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성막 완성이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새해 첫날에 세우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살고 이것으로 시작해라는 말이다. 피를 바른 그 날, 대단한 역사가 400년 만에 일어났는데 결국 마지막으로는 성막을 만들게 되었다. 레위기는 뭘 말하냐면 그 성막에서 뭘 해야 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번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이다. 그 성전 안에서 행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요 능력이다. 이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었다고 봐야 한다. 하나님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꿇게 만드신 것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니까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는가? 아무 힘이 없었다. 만일 먹을것이 없으면 난리 나고 그 자리에서 며칠만에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피제사,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성막을 먼저 만들라고 한 것이다.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평소에 예배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 하면 상처될까봐 말리는 장로님들도 있었다. 예배에 빨리 안오는 사람은 항상 늦는다. 십분만 빨리 오면 될텐데 안온다. 그래서 좀 치면 이게 시작이다. 이 때 앉아 있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은 중치고 나면 바로 문을 잠근다고 한다. 그러면 안된다 해서 그것도 못한다. 빨리 오시기 바란다. 와서 성경 읽어보고, 진짜 기도해야 한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 안오냐고

문기 전에 예배부터 수요일 금요일까지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심각한 것이다. 이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지만 심각한 것이다.

1. 예배

예배는 언약을 누리는 비밀이다. 예배 자체가 언약이 아니다. 예배는 예배의 내용이 있다. 그 언약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담고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다.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예배 말고, 정말 마음을 쏟는 예배를 정말 드리는 것이다. 그리하면 언약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게 된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되면 광야 통과한다는 것이 출애굽기이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광야를 통과하는데에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부터 만들라는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 안에서 할 제사, 곧 예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

일단 제사에는 종류가 다섯가지가 있다. 제일 첫째가 오늘 번제인데, 제물의 모든 것을 내장까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린 것을 상징한다. 다음에 화목제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제사이다. 그리고 속죄제라고 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제사이다. 그리고 속건제라는 것이 있다. 내가 어찌다 실수를 하게 되면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제사이다. 그 다음에 소제라고 있다. 이것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예수님의 깨끗한 죄없는 몸을 상징하는 제사이다. 이것이 5대 제사이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첫째는 화제, 오늘 번제가 화제이다. 그 다음에 전제이다. 부어드리는 것이다. 포도주를 붓는 것, 그것은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다. 맥추절에 이삭을 흔들어 드리는 것이고 거제라는 것이 있는데 들어서 드리는 것이다.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제사의 종류와 방법은 다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오늘 번제인데, 가장 대표적인 제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졌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릴 때 경제적 인 사정에 따라서 드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3절과 10절에 보면 소든 양이든, 염소든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고 했다. 예수님이 흠없고 죄없으신 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손을 얹어서 자기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5절에는 제사를 드릴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소를 제사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그 소의 목에 칼을 찔러 죽여야 한다. 양이나 염소도 다 잡고 제사드릴 사람이 목에 칼을 찔러 피를 흘리게 하여 죽여야 한다. 본문에 보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릴 사람이 그 잡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야 한다. 놀라운 일이다. 껍질을 다 벗겨야 한다. 각을 뜬다고 했는데, 이것은 근육이나 살을 빼와 다 분리하는 것이다. 말이 분리되지 칼로 다 잘라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본문에 나중에 보면 그 안에 기름들, 내장 붙은 기름들을 다 칼로 떼어 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장 꺼내야 한다. 내장이 뭐? 창자, 위, 간, 심장 이런거 다 꺼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렇게 된 것을 전부 몽땅 다 제단에서 제사장이 불에 태우는 것이다. 절차가 보통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이것이 너의 죄라는 메시지이다. 번제를 드리는 아주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한번만 드리면 누구든지 심각해지는 것이다. 비둘기를 드릴때에는 칼을 안대고 목을 꺾어서 죽이고 안에 있는 내장은 버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안에 내장

전부 다 꺼내야 한다. 껍질 벗겨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정도로 처절하다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라. 소는 아니어도 양 한 마리 그렇게 한다면 하겠는가? 피도 철철 흐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이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고향이 시골인데, 고등학교는 도시로 나간다고 하면 마산이다. 마산에서 학교를 다녔다. 한번은 농번기에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일해주라고 휴가를 준다.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죽은 닭이 있는데, 죽은지 얼마 안되어 먹물수가 있다. 그래도 그 안에 피가 남을수 있기 때문에 닭의 목을 자르라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는데, 죽은 닭이었다. 못쳐다 못겠었다. 그래서 옆으로 해서 자르는데 입에서 침도 질질 흘렀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죽은 닭이었다. 염소나 소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식으로 제사 한번 지내면 어떨겠는가? 이것이 예배이다. 그냥 예배드리면 되겠는가? 심각한 것이다. 장난으로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다. 예수님은 장난으로 죽으신게 아니다.

이렇게 다 되어지고 나면 제사장들이 몽땅 다 들어서 전부 다 제단 위에서 태워드린다.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네가 스스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니겠는가? 니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니가 한번 체험해야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 목상하고 내 마음에 감사로 목상되는 날이 되기 바란다. 꼭 싫으면 미국에서는 못하겠지만 다른 나라 가서 소 한 마리 잡아보면 된다.

2. 언약이 답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 하셨다. 언약이 답이다. 왜 자주 이야기 하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언약으로 안 살고 뭔가 다른 자기 것으로 살기 때문이다. 출애굽은 성막을 완성했고 레위기는 성막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이 살아 있으면 광야의 어려움이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기나중에 만나 내려오고, 때를 따라서 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가 날아온다. 네가 이것을 하고 있으면, 완벽한 성령님의 인도이다. 광야를 간다고 하면 네비게이션 없으면 못 간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당시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지만 슈퍼 네비게이션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님이다. 니가 이 언약으로 살면 너 죽지 않아. 또 너를 해치는 자 없을 것이고, 네가 전쟁할 일 있으면 무조건 다 이길거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전쟁 100번 하면 100번 다 이기고 너는 저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못 갖는거지. 이게 언약이다. 요단강도 갈라질것이고 여리고는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할 것이니까 괜히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언약으로 통과.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으면 왜 힘들게 싸우겠느냐? 그냥 언약으로 통과해라. 그래 되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들의 너의 앞에 무릎 꿇을거 아니냐? 그러니 언약은 정복 아니냐. 그 소리다. 이것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남은자고 이것을 위해 사는 순례자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은 정복자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너의 인생이야, 왜 언약으로 안사냐?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의 기도는 내 언약과 내 나라와 의를 누려라. 이것으로 끝나니.. 그런데, 왜 자꾸만 말을 많이 하나? 말 안해도 된다고 했잖나, 그거 말고 언약을 잡아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안 살면 오늘 회개하고 뒤집어야 한다. 이것이 1번이 되어야 하는데, 1번이 아니야, 그러면 응답이 안오는 것은 당연하다. 니가 이 언약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누려질것인데, 누려지는 것도 내가 해줘야 하는데 내가 해줄거 아니냐. 그 누림은 내가 할 일이지 니가 할 일이 아니야. 니 스스로 되냐? 안돼~ 내가 할거고 내가 해

출거야. 그냥 기도 시간에 언약잡고 고백하고 기다려라. 있어보라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중에 만일 증거가 나타나면 제발 좀 증인되줘라. 이것이 성경 아닌가? 이렇게 안사는 사람은 오늘부터 회개하고 뒤집어야 한다. 이런 저런 부정적인 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 성경은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거 잡고 나가면 된다. 이게 본래 복음이다. 복음은 본래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무조건 다 정복이다. 어찌됐건 간에 응답을 계속 잡으면 끝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다. 진짜 믿어서 반대로 가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진짜 복음이 답인가? 내 인생에 잡다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복음만 해도 되는가 질문 한번 해봐라. 정말 하나님 모든게 영적 문제입니까? 답 나와 된다. 답 안나면 방향한다. 우왕좌왕. 시간낭비, 심하면 비참해진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뜻 모르면 비참해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해도 될만큼 응답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는가?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이 안 바뀌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게 얼마나 끈질긴지 알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이다. 살아 있는 짐승에 칼을 가지고 목을 찢어 피를 내겠는가?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의 다 벗겨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벗기는가? 그것도 끝이 아니라, 근육이나 살, 그것을 다 분리 해내야 한다. 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분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근육에 붙어 있는 기름, 모든 것 다 걷어 내야 한다. 이 정도로 처절하게 속속들이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우리 보고는 그냥 믿으라고만 했는데, 그것도 잘 안하는 것이다. 매일 한 마리씩 잡으라고 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어떨겠는가?

언약 따라 가면 광야 통과하는 것 믿는가? 진짜 믿는가?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믿는가? 믿어야 한다. 안 믿으면 죄송하지만 자기만 손해이다. 하나님은 다 해놨다. 안 믿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살고 그러면 대개 우리 눈이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데, 옆사람보다 내가 잘 사니까 괜찮아. 그러나 괜찮은 것은 좋은데 틀릴수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경제도 좋고 자녀도 좋고 다 좋은데 틀릴수 있다. 우리보다 잘사는 불신자들 짝 차 있다. 그러나 틀렸다. 틀린 것은 잘살아도 소용없는 것이다. 죽는데. 뭐. 하나님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0점이고 마이너스가 된다. 잘도 잘아야 하지만 틀리게 살면 안된다. 언약으로 딱 살아야 한다. 렘넌트, 청년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더더욱 언약으로 살기 바란다. 이게 발견이 되면 그때 올인이 나온다. 인생을 번제처럼 통체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고 가치있는 것이 이것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전부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된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싶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란다. 예배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귀한 것이다. 축복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번은 있어야 한다. 그 한번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